

의학적 증강의 윤리 쟁점

박재현*

I. 서론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를 넘어서 완벽 또는 행복을 추구하는 일(pursuit of perfection or happiness beyond therapy)’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어 왔던 일이다. 의학적 증강(medical enhancement)¹⁾은 의학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정상 또는 건강 이상을 추구하는 일이다. 의학적 증강의 막연한 희망이 이제 과학기술 특히 의생명과학의 발전으로 상당 부분 가능하게 되었고 경제적 여유, 몸과 의학에 대한 의사와 일반인들의 인식변화, ‘삶의 질’의 강조, 의료의 상업화, 그리고 일상생활의 의료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치료라고 할 수 없는 의료행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신과적으로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내릴 정도는 아니지만 우울한 상태에 있거나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정상인에게 항우울제인 프로작(Prozac)을 복용하

게 하여 이를 극복하게 하거나 발기부전환자가 아닌 성적인 기능이 정상적인 젊은 청년이 단순히 성적 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비아그라를 복용하는 행위이다. 또 다른 예는 일부 학생들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의 치료제인 리탈린(Ritalin)을 ‘공부 잘하게 하는 약’, ‘머리 좋아지는 약’으로, 수면장애 치료제인 모다피닐(Modafinil)을 ‘잠 쫓는 약’으로 복용하는 행위이다.²⁾

그러나 내포되어 있는 윤리적 문제의 다양성,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증강이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윤리 쟁점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용성형 수술을 비롯한 의학적 증강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어느 정도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겠지만 아직은 의학은 물론 의료윤리, 철학, 사회학, 의료정책 등 관련 분야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간혹 산발적이고 부분적인 논의가 의학적 증강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진행되기도 하나 주된 관심

* 경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학교실. 02-961-9102. fool@khu.ac.kr

1)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enhance는 heighten, increase; especially: to increase or improve in value, quality, desirability or effectiveness이다. 명사형인 enhancement는 우리말의 증대(增大), 증강(增強), 강화(強化)의 뜻과 비슷하다. 증대는 양적인 증가의 의미가 더 강한 것 같고 강화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 enhancement의 번역어로 증강을 사용하였다.

2) 한겨레신문. 2004. “머리 좋아지는 약 밀수 영여강사 적발”, 6월 9일, 국민일보. 2009. “잠 쫓는 약 프로비질, 습관성으로 남용”. 3월 18일.

은 의학적 증강 기술의 경제적인 가치와 기술의 오남용과 부작용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미용성형수술과 관련하여 외모지상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최근에는 의료 관광객의 증가와 맞물려 '국내 미용성형수술 시장 규모는 최소 1조원 이상', '우리나라가 아시아 성형수술의 메카로 자리매김한 느낌이다.' 등의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산업으로서의 미용성형수술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다.³⁾ 또 증강 기술이나 약물의 오남용과 부작용에 관한 논의도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의학적 증강의 쟁점은 증강 기술의 경제적 가치나 오남용, 부작용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의학적 증강의 윤리 쟁점은 의학의 본질, 개인의 선택과 자유, 의사의 역할, 사회 정의 등으로 다양하고도 중요하며 더 나아가 인간 본성, 인간 정체성의 문제까지 포함되기도 한다. 이미 북미를 비롯한 서구에서는 의학적 증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⁴⁾ 우리나라에서는 의학적 증강과 관련된 산발적인 논의는 있으나 증강, 치료 이상의 추구의 용어를 사용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없는 것 같다.⁵⁾ 앞으로 이루어질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증강의 개념을 소개하고 관련된 윤리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앞으로 이루어질 의학적 증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외국 특히 북미를 위주로 하여 이루어진 윤리 논쟁을 소개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다.⁶⁾ 먼저 의학적 증강에 대한 논의가 어려운 이유를 살펴본 뒤에 의학적 증강의 정의, 증가 원인, 분류, 윤리 쟁점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의학적 증강에 대한 논의의 어려움

무엇보다 어려운 점은 동일한 기술과 약제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에 따라 의학적 증강이 될 수도 있고 치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안면성형수술이 상해나 선천성기형 환자에게 시행이 되면 치료가 되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에게 시행이 되면 증강이 된다. 또 수면장애 환자에게 쓰이는 모다피닐은 치료제이지만 수면장애가 없는 대학생이 학기말시험 기간에 사용하는 모다피닐은 증강제가 된다. 때로는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처해 있는 입장이 다른 두 소년에 대한 성장호르몬 투여 사례가 대표적이다. "A는 키가 작은 11살 소년으로 뇌종양으로 인해 성장호르몬이 분비되지 않는다. A의 부모는 평균 신장이며, A의 예상 신장은 성장호르몬 투여를 하지 않을 경우 약 160cm로 예상된다. B는 키가 작은 11살 소년이다. 최근의 검사에 의하면 성장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고 있다. 그러나 소년의 부모는 모두 키가 매우 작았으며 소년의 예상 신장은 160cm이다."⁷⁾ 이 사례에서 제기될 수 있는 질문들은 'A소년에게 성장호르몬을 투여하는 것은 치료이고, B소년에게 성장호르몬을 투여하는 것은 증강인가?', 'B소년은 불평등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A, B소년 모두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주어진 조건이라는 면에서는 동일한 것 아닌가?' 등이다. 다른 어려움은 의학

3) 조선일보, 2009. "국내 성형시장 '견적' 최소 1조원", 10월 27일; 조선일보, 2009. '코리아 뷰티 벨트', 10월 15일.

4) 미국 대통령 생명윤리자문위원회(President's Council on Bioethics)는 2003년에 '치료 이상: 생명공학과 행복의 추구(Beyond therapy: Biotechnolog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라는 제목으로 의학적 증강에 대한 328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00년에는 Cambridge Quarterly of Healthcare Ethics(Volume 9, Issue 03)에서, 2005년에는 The American Journal of Bioethics(Volume 5, Issue 03)에서 의학적 증강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5) 최근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자유공모과제발표회(2009년 11월 20일)에서 의학적 증강과 관련된 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6) 이 논문은, 「박재현, 의학적 증강에 관한 윤리적 고찰,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5.」의 일부 내용을 토대로 2005년 이후의 연구 결과를 추가하여 작성된 것임.

7) Daniels N. The Genome Project, Individual Differences, and Just Health Care. ed by Timothy FM & Marc AL. Justice and the

이 넓은 의미에서 증강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고 또 의학적 증강이 의학의 영역에 지속적으로 편입되며 확장되어 왔다는 점이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미용성형수술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초창기에는 미용성형수술이 의료의 정당한 영역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의료의 영역으로, 의사의 정당한 업무로 인식되고 있음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렇게 되다보니 치료-증강의 구분은 더 모호하게 되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의학적 증강이 의학적인 이유보다는 의학외적인 이유로 확대되고 있는 점이다. 의학의 변화라는 큰 흐름이 증강의 급속한 증가의 한 가지 원인이지만 확대되는 다른 원인으로 육체를 조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문화, 삶의 질을 강조하는 경향, 의료의 상업화, 그리고 의료화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의학적 증강의 확대는 의학적인 이유 밖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어 증강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이 쉽지 않다.

2. 의학적 증강의 정의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의학적 증강의 정의가 마련된다면 의학적 증강을 둘러싼 논쟁이 지금처럼 혼란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학적 증강의 정의 자체에 대한 의견 차이가 너무 심하여 모두가 동의하는 정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다. 어떤 경우에는 의학적 증강을 논의할 때 어떤 버전(version)의 증강을 사용하고 있는지 먼저 밝혀야 혼선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다.

의학적 증강의 정의는 건강과 질병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의학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건강과 질병을 정의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 왔지만 건강과 질병의 정의에 대한 견해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치료가 질병 상태에서 건강상태로의 향상이라면 증강은 건강한 상태에서 '더 건강한 상태'로의 향상 또는 완

벽을 향한 추구라고 할 수 있다.

생명의료윤리 논의에서 증강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양호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거나 회복시키기 위해 고안된 중재 또는 개입(intervention)을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인간의 형태나 기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할 때 동원되는 중재 또는 개입(intervention)의 특성을 기술하는 데 사용된다. 치료와 증강을 명쾌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의학적 증강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의학적 증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보는 시각과 맥락에 따라 크게 다르다. 글렌 맥기(Glenn McGee)는 의학적 증강을 의학과 관련지어 다음 네 가지 방식으로 설명한다.⁸⁾

첫째, 의학적 증강을 무익한 치료(medical futility)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의료를 완치 목적의 치료, 완화 목적의 치료, 평가적 치료, 수용 가능한 무익한 치료, 예방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이런 다섯 가지 의학적 개입(치료 또는 예방)을 의학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 영역을 벗어나는 것을 의학적 증강으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의학의 본질적인 영역을 규정하고 이 영역 안에서의 의사의 역할을 고려할 때 도움이 된다.

둘째, 의학적 필요(medical necessity)에 근거해 증강을 이해하려는 방식으로 노만 대니얼스(Norman Daniels)와 제임스 새빈(James Sabin)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의학적 필요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의료비 지불자의 의무를 필연적으로 함의하게 된다. 의학적 필요가 없으면 치료의 의무는 면제되고 치료 받을 권리도 축소된다. 의료 서비스가 어떤 측면에서는 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이익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의학적 필요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이 방식으로 볼 때 증강은 무익한 치료가 아니라 '의학적인 조건만을 치료해야 하는 제도(institution)로서의 의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된다.

Human Genome Projec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4 : 123.

8) McGee G. Ethical Issues in Enhancement: An Introduction, Cambridge Quarterly of Healthcare Ethics 2000 ; 9 : 299-303.

이 방식은 '의학적 필요에 부응하는 직업이 의사' 라는 면에서 의사의 역할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보험 급여의 지불과 관련된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데도 지침이 될 수 있다.

셋째, 의학의 역할을 사람들을 '대등한 경쟁자의 상태'가 아니라 '정상적인 경쟁자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보는 방식이다. 노먼 대니얼스와 존 롤즈(John Rawls)의 주장으로 두 번째 방식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다. 정상적인 경쟁자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불리하다고 할지라도 종-특유(species-specific)의 정상 기능을 벗어나지 않는 한 의학적 필요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의학의 의무는 단지 정상 경쟁자를 '정상 기능 범위'로 회복시키는 것이지 모든 경쟁자를 '대등한 상태'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방식은 가장 복잡한 형태의 이해 방식이고 많은 반론이 있기도 하지만 사회 전체의 의료에 대한 평등과 정의의 문제를 논의하는 거대 담론에 도움이 된다.

넷째, 실용주의적(pragmatic) 방식으로 치료와 증강의 구분은 의료의 틀 안에서 의사와 환자에 의해 제공되는 맥락을 엄격하게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방식에 의하면 의사는 진료 현장에서 이미 치료-증강의 구별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전문직 윤리에서 강조될 수 있으며 또 치료-증강을 구분하는 전문직 집단의 지침의 제정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의학적 증강을 설명하는 앞의 네 가지 방식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증강의 논의에서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글렌 맥기의 정의와 관계없이 현실 세계에서 논의되는 의학적 증강의 개념은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증강의 개념은 이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각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강'을 사용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모두가 동의하는 의학적 증강을 정의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일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3. 의학적 증강의 증가 원인

의학적 증강의 증가 원인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의학의 발전

과학 기술과 의학의 발전이 의학적 증강의 증가의 일차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면 아무리 간절히 희망하는 증강이라 해도 실행에 옮기기 힘들겠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위험이 크게 낮아져 별다른 위험부담 없이도 증강의 실행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이 증강의 중요한 증가 원인일 것이다.

둘째, 신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인간의 육체를 고정되고 변화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게 된 육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원인의 하나이다.

셋째, 삶의 질의 강조

삶의 질을 강조하는 의학의 변화, 사회 분위기의 변화가 증강의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 더 나은 삶의 질은 곧 '더 좋음' 또는 '건강 이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넷째, 의료의 상업화와 상업주의의 영향

의학적 증강의 가장 강력한 동력일 수도 있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증강의 기술과 기술 그리고 상품으로 치료보다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학적 증강 확대의 한 원인이 된다.

다섯째, 의료화

의료화(醫療化, medicalization)는 1970년대 초반에 사회학자 어빈 졸라(Irvin K. Zola)가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인간 삶의 여러 국면에 점점 더 많이 건강과 질병의 표지(標識)를 붙여 의료와 연관 지어 나가는 과정을 가리킨다. 달리 말하면, 의학이 관할 또는 지배하는 영역

이 점차 확대되어 과거에는 의학적인 이슈로 취급되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이 의료의 영역에 포함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의학적 증강은 의료화의 한 단면으로 볼 수도 있다. 생물학적 의학의 급속한 발전은 과거에는 질병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정상외의 범주'를 의료에 포함시켜왔고 이제 더 나아가서 '정상 이상의 범주'를 의료에 포함시켜가고 있다.

4. 의학적 증강의 분류

다양한 분류 방법이 있지만 흔히 거론되는 세 가지 분류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증강을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영역으로 나누는 방법이다.⁹⁾ 둘째는 비유전학적 증강과 유전학적 증강으로 나누는 방법이다. 셋째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증강을 위주로 하여 의학의 전문 분야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다.

의학적 증강을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영역으로 나누는 방법에서, 신체적 증강은 키를 크게 하거나, 근육량을 증가시키거나 수면시간을 줄이거나 노화를 늦추는 시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지적인 증강에서는 기억력이나 상상력을 향상시키고 다차원적인 사고를 향상시키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정신적 증강 영역에서는 사회성을 증가시키거나 부끄러움을 덜 타게 하고 확신을 심어 줄 수도 있다. 도덕적 증강은 폭력성을 감소시키거나 더 친절하게 하거나 동정심을 더 갖도록 하려는 것들 예로 들 수 있다.

의학적 증강을 크게 비유전적 증강과 유전적 증강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유전적인 증강은 어떤 분류 방식을 따르든지 제시된 영역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유전자 조작은 체세포뿐만 아니라 생식세포 차원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 사람만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 계속 유전될 수도 있어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근본적이고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유전학적 증강에는 환원주의 논란이 있고 자연(nature)과 양육(nurture), 진화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 '의학적 증강'의 주된 논의의 장이 되고 있다.

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증강을 위주로 하여 그 영역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이 분류 방식은 이미 경험하고 있는 증강 기술을 위주로 한 분류이기 때문에 현재의 증강의 논의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미용성형수술이다. 미용성형수술은 임상의학의 오랜 경험의 산물이지만 치료 이상을 추구하는 의미에서 전형적인 의학적 증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인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호르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각종 합성 호르몬제제의 사용과 관련된 증강의 영역이다. 성장호르몬을 사용하여 키를 더 크게 하거나 여성, 남성 호르몬을 사용하여 노화를 방지하려는 노력들 예로 들 수 있다.

셋째, 인간의 특정한 기능을 최고로 하려는 수행 증강(performance enhancement)이다. 로스먼(Rothman)의 책¹⁰⁾에서는 이런 증강의 문제를 '최대한의 수행(peak performance)'라는 소재목으로 다루고 있는데,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리탈린을 사용하거나 감정을 조절하기 위하여 프로작을 사용하는 등의 약리학적인 증강을 예로 들 수 있다. 성적인 기능을 증강시키려는 목적의 약물 사용, 예를 들어 발기부전 치료 목적이 아닌 비아그라의 사용이 수행 증강에 해당하고 운동선수들의 기록 향상을 위한 스테로이드 복용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유전학적 증강이다. 인간 유전체 지도의 완성 이후에 이 '생명책'에 담긴 정보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9) Baylis F & Robert JC. The inevitability of genetic enhancement technologies. Bioethics 2004 ; 18(1) : 1-26.

10) Rothman SM & Rothman DJ. The Pursuit of Perfection- The Promise and Perils of Medical Enhancement. Pantheon Books, 2003.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유전적인 요소가 지금까지는 정상외의 변이로 알려졌던 성격이나 미용적인 특징과 인과관계에 있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유전적 요소는 지능, 동성애적 성향, 비만, 반사회적 행동, 약물 중독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다. 따라서 유전학적 증강 또한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5. 의학적 증강의 윤리 쟁점

보는 시각이나 영역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의학적 증강의 윤리 쟁점을 기술할 수 있다. 스포츠 분야의 의학적 증강은 어느 정도 정리된 면이 있어 윤리 쟁점을 파악하기에 좋은 영역이다. 국제올림픽 위원회(IOC)는 오래 전부터 도핑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는데 반(反)도핑의 근거로 첫째, 선수의 건강을 손상한다는 건강·의학상의 이유, 둘째, 페어플레이 정신에 반한다는 윤리 도덕적인 이유, 셋째, 사회악을 낳는다는 사회상의 이유를 들고 있다.¹¹⁾ 스포츠의 수행 증강을 예로 들어 의학적 증강의 윤리 쟁점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의학의 목적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인데 경쟁에 이기려는, 건강한 선수에게 약물을 투여하거나 의학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의학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식의 논쟁이다.

둘째, 운동 시합의 승리는 약물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고된 훈련과 인내 등을 통하여 성취할 때만이 승리의 가치가 있다는 식의 논쟁이다.

셋째, 개인의 선택과 자유에 대한 논쟁은 다음과 같이 전개될 수 있다. 선수에게 도핑을 금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향후 운동선수의 건강 악화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인데, 만약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이 위험성, 건강 악화의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자신의 더 큰 행복은

경쟁에서의 승리에 있다.'고 주장하며 증강을 강력히 원한다면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넷째, 평등과 정의의 문제에 관한 논쟁이다. 스포츠의 기본 정신은 페어플레이에 있는데 도핑에 의해 좋은 결과를 얻으려는 행위는 평등과 정의에 반하는 것이며 결국 공정 경쟁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스포츠의 진정한 의미는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를 최대한 극복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있는데 이를 부인하는 것은 스포츠 자체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이 쟁점들은 어떤 종류의 증강에서든지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쟁점 각각을 찬성과 반대로 구분하지 않고 몇 가지 단편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의학의 목적

의학의 목적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학적 증강을 원하는 사람들의 안전이다. '무엇보다 해를 끼치지 말라.'는 의학의 대명제를 벗어나서 윤리를 말하기는 힘들다. 건강에 해를 끼치면서까지 '더 좋음'을 추구하는 행위를 윤리적으로 정당화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또 의학의 목적은 의학, 질병, 건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의학의 전통적인 목적은 '질병과 상해의 치료'라고 할 수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치료(cure)가 아닌 돌봄(care)과 건강 증진(health promotion), 그리고 예방 또한 의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고유 영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에 의학적 증강은 치료, 돌봄, 건강증진, 예방에 해당하지 않는 '의학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자연적인 과정에 개입하는 면이 있고 꾸준히 증강적인 면을 의학

11) 김사연, 현대 스포츠 사회학의 이해, 서울 : 학문사, 1998.

의 영역에 편입시켜 왔다는 점을 볼 때 증강을 치료와 구별하여 의학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 질병으로부터 건강한 상태로의 향상, 건강한 상태로부터 더 좋은 상태로의 향상에 익숙한 의사들에게는 치료-증강의 경계가 무의미할 수도 있고 의사들은 쉽게 그 경계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2) 수단과 목적

동일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A수단을 이용하여 달성하는 것과 B수단을 이용하여 달성하는 일 사이에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을까? 유전학적인 방법으로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것과 새로운 교수법 개발이나 학급의 학생 수를 줄이는 등의 고전적인 교육적 전략으로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 것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로널드 콜 터너(Ronald Cole-Turner)는 리탈린의 사용과 관련하여 수단과 목적의 문제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는 데,¹²⁾ 첫째, 일부 수단은 그 자체로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부작용이 없는 약이 없고 또 설사 지금은 없어 보이더라도 나중에 발견될 수도 있는데 질병 치료가 아니라 학업 성취 향상을 목적으로 꼭 쓸 필요가 없는 약을 아이들에게 복용시키는 일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둘째, 일부 수단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는 점이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있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쉽고 빠른 길’을 선택한다면 전혀 다른 목표를 성취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리탈린이 학습의 대체품이 될 수는 없으며 기껏해야 학습을 위한 ‘집중력’의 선결 조건을 제공할 뿐인데 굳이 손쉬운 방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또 적절한 목적(proper goal)은 수단 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수단을 이용하여 얻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의해 결정된다며 ‘수단의 중요성’을 비판하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¹³⁾

3) 개인의 선택과 자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기도 한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베레스트 산 등정을 허용하고 있다. 또 실패의 가능성이 매우 큰 벤처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을 말리지 않는다. 이처럼 의사결정능력이 충분한 개인이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돈을 들여 의학적 증강을 선택하는 것을 막을 근거는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마치 의학적 증강에 대한 제한은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가찬가지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학적 증강의 시술자인 의사가 의료제공자로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되는 줄을 알면서도 그저 의료소비자의 요구에 따르는 것을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비판을 할 수도 있다.

4) 평등과 정의

경쟁의 참여자들에게 평등은 중요한 문제다. 예를 들어 운동 시합에서 운동선수가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수험생들이 입시 경쟁에서 리탈린 같은 뇌기능 향상 약물을 복용하는 일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가 있을 수 있다. 또 의료 자원은 늘 부족하게 마련인데 치료 영역에서조차 분배의 정의를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만 의학적 증강의 혜택을 누리는 일은 부정의를 확대시키는 일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의학적 증강을 사회 정의에 초점을 두고 보면 선택의 자유, 기회의 평등,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

12) Ronald Cole-Turner, Do Means Matter? ed by Parens E. Enhancing Human Traits: Ethical and Social Implications (Hastings Center Studies in Ethics),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0.

13) Pence GE. Re-creating medicine: ethical issues at the frontiers of medicine.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0.

분배의 정의, 경제적 차별, 계급과 인종의 차별 등의 윤리 쟁점을 말할 수도 있다.

5)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

인간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자연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어렵지만 의학적 증강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논쟁이 될 수 있다.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 속성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 존중이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기술을 과신하는 인간의 오만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의학적 증강이 본질적으로 인간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한계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쟁점을 정리하면 첫째, 의학적 증강이 의학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또는 의학의 고유 영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쟁이다. 둘째, 수단과 목적의 관계와 관련된 쟁점이다. 동일한 목적을 A수단을 이용하여 달성하는 것과 B수단을 이용하여 달성하는 것 사이에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다. 셋째, 개인의 선택과 자유에 관한 쟁점이다. 자율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 의료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건강 이상'을 추구하는 개인의 요구에 대해 의사들이 "나는 충분히 설명했고 나의 고객은 이를 자유롭게, 강요당하지 않고, 완전히 이해하고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시술을 해도 되는 것인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넷째, 개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의 평등과 정의에 대한 논란이 있다. 다섯째,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에 대한 인식의 문제다. 개인적 차원의 윤리에서 무엇보다 근본적인 물음은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이다.

III. 결론

의학적 증강은 의학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정상 또는 건강 이상을 추구하는 일이다. '질병·상해의 치료와 예방'을 넘어서는 '의학적 증강', '치료 이상의 추구'는 이미 의료 영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윤리적인 검토가 없어 증강의 전반적인 윤리 문제에 대한 고찰이 시급하다.

정상, 건강, 질병의 논의에서 출발하여 증강을 정의하는 일은 쉽지 않다. 또 건강이 '질병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때 치료와 증강을 구별하고 그 사이에 경계선을 긋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언어와 개념의 모호성 외에도 치료-증강의 구별은 본질적으로 복잡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건강, 정상성의 개념에 의존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의학적 증강을 논의할 때 어떤 의미의 증강을 사용하고 있는지 먼저 밝혀야 혼선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로 의학적 증강은 정의 자체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서 대다수가 동의하는 정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치료와 증강의 구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최소한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치료와 증강의 명확한 경계를 알아낼 수 없다는 주장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치료-증강의 구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첫째, 현실의 요청이 가장 중요한 필요의 근거가 된다. 둘째, 치료-증강 구별이 명확한 경계나 명쾌한 기준을 제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치료와는 달리 증강에는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도덕적인 경고의 표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명확한 경계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치료-증강의 구별은 도덕 구역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특정한 의료 개입이 우리가 기대를 하는 구역에 위치하는지, 우려를 나타내는 구역에 위치하는지를 파악하여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학적 증강은 많은 윤리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안전성의 문제가 일차적으로 제기된다. 다른 대표적인 쟁점은 의학의 목적, 수단과 목적의 문제, 개인의 선택과 자유, 평등과 정의,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에 관한 것이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를 어떻게 받아들일느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사회적 차원의 문제는 무엇보다 평등과 정의의 문제가 핵심적이다. 앞의 설명과 같이 증강과 관련하여 안전성, 평등, 자유 등이 주로 등장하는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라는 주장이 있는데,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를 존중하는 것이 인간 존중이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기술을 과신하는 인간의 오만이라는 비판이다. 비자연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증강을 행하는 것에도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의학은 건강의 회복, 질병의 치료, 고통의 경감과 같은 의학의 고유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한계를 넘어서는 일은

의사가 할 일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의학적 증강은 의학의 영역에 꾸준히 포함되며 확대되어 왔다. 그 동안은 증강이 의학의 주변부에 위치하고, 의학의 전체적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적은 비중을 차지하여 왔다. 그러나 의학적 증강의 지나친 확산과 무비판적인 수용, 그리고 합리화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또 어느 정도로 의료의 본질과 인간의 정체성에 영향을 줄지 또 사회적인 영향을 가져올지 모른다. 의학적 증강에 대한 개인, 사회, 의사 전문직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다른 의료윤리 쟁점과 마찬가지로 의학적 증강에 대한 학제적인 연구 또한 강력히 요구된다. **ME**

색인어

의학적 증강, 증강 기술, 치료 이상, 윤리 쟁점, 치료-증강의 구분

Ethical Issues in Medical Enhancement

PARK Jae-Hyun*

◉ Abstract

The enhancement of human capacities through medical practice is becoming increasingly common and raises many ethical issues. One important question is whether it is even possible to distinguish between medical “treatment” and “enhancement.” On the one hand, there are those who believe that the distinction is both impossible and meaningless; on the other hand, it seems necessary to draw such a distinction in order to determine which medical procedures are compatible with the proper goals of medicine. Other important ethical issues raised by medical enhancement procedures include balancing a patient’s individual autonomy with the effects of these procedures on social equality and justice. This article argues that there is an urgent need for public debate and discussion on the ethical issues raised by medical enhancement procedures.

◉ Keywords

medical enhancement, enhancement technologies, ethical issues, treatment-enhancement distinction

*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Kyung He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